

여수산단 도로 주변 관로 위험 노출

나프타 등 폭발성 강한 산단 원료 이송관 수십개 밀집

20cm 높이 방호벽 형식적, 차량 덮쳐 대형 사고 부를 뻔



지난 10일 여수산단 호남화력발전처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폭발성이 강한 원료이송관과 충돌,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여수산단 도로 인근에 설치된 폭발성이 강한 각종 관로들이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관계사와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다.

1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15분 여수산단 월내동 호남화력발전처 인근 도로에서 배모(61)씨가 몰던 승용차가 흡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열 관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H사의 나프타 관로가 방호벽을 뚫고 들어 온 승용차에 부딪혀 일부 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폭발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고 현장은 도로 가장자리에서 1m도 채 안 되는 지점에 20cm정도 높

이 밖에 안 되는 형식적인 콘크리트 방호벽 안으로 수십 개의 관로가 밀집해 있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 모인 관로 소유사들과 경찰 관계자들은 “만약 대형 차량이 덮쳤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안전 장치 강구에 대해 입을 모았다.

현재 여수산단내 주요 도로에는 4차선으로 폭이 비좁고 도로는 인도도 없는 상태에서 관로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해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이순신대교가 개통될 경우 차량 통행량 급증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산단 진입 도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관로 소유사들은 이설 비용 등 경제적 이유를 들어 뒷집을 지고 있고 감속기판들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여수시가 지난 3월 여수산단 월내동 와이엔택에서 나포고 1.5km 구간에서 도시계획선 25m내에 불법

으로 설치된 5개사 18개 원료이송관로에 대해 이설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관계사들이 적극적인 이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일부 회사는 이설시에 공장 가동 중지에 따른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되레 월내동 와이엔택에서 나포고 1.5km 구간에서 도시계획선 25m내에 불법

■ 새얼굴

공정성바탕 주민 인권 보호 우선

김학남 곡성경찰서장



“주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일 취임한 김학남(47) 곡성 경찰서장은 “자율과 가족애를 바탕으로 함께 뛰는 곡성경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 서장은 “경찰이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공정성과 인권보호에 대한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성 출신인 김 서장은 전남대 사대 부교과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남경찰청 인사계장,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광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미경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희기자 kjkim@

여수시장 박람회 홍보 강행군

아태도시 협력 공동선언

김충석 여수시장과 시 대표단은 지난 6~8일 호주 브리즈번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아태도시 정상회의(APCS)’에 참석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적극 홍보했다.

김시장은 회의 마지막 날인 8일 아태도시회의에 참석해 20개국 100개 도시 시장들과 함께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시장단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특히 그라블링크 브리즈번 시장의 발표를 통해 채택된 ‘시장단 공동선언서’에 김 시장이 제안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녹색변혁’ 일부가 공동선언서 내용에 반영됐다.

공동선언서 마지막 부분에는 ‘아태도시 정상회의’가 장려하는 국내외 프로그램중 ‘공동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아 아태도시 회원국들의 박람회 참가 가능성을 높였다.

/동부취재본부=김찬희기자 chkim@

민선 5기 1년

정종해 보성군수

“농업개방 맞서 특화작목 육성”



“지역안정과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농·어업 소득창출과 보성농·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민선 5기 지난 1년간 이끌어온 군정을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현장행정과 군민화합에 군정의 무게를 두고 부지런히 발로 뛰어나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군수는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에도 안정적인 지역기반 위에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군정을 원만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에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울포 종합 휴양단지과 녹차 생태공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비봉공룡굴 조성 등 관광 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열악한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 농공단지 분양과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표준 기성관측소와 연계한 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미래농업 등 신소재 부품 R&D단지, 남해 고속도로, 목포~보성~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보성지사 유치 등으로 물류와 교통, 신산업 중심지로 가고 있다.

군은 장학재단을 설립해 100억 원을 목표로 56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평생·영어교육특구’에 걸맞은 특화사업 추진과 방과후 학교 및 영어체험교실 지원 등 지역교육 기반을 강화해 보성 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민선 4기 취임 이후 매년 보성실업고 차산업과 졸업생을 지방공무원 9급으로 특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보성군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평균지원액은 직·간접 경비를 포함한 모두 119만원으로, 도내 평균 33만9000원을 훨씬 웃도는 최다 지원이다.

정 군수는 지난해 민선 5기 취임과 함께 행정 조직을 일종성, 고객 중심으로 바꾸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농어업인 소득창출 최선

세계적 차 중심지 조성

영어특구 경쟁력 키울것

트 브랜드 쌀 선정, 보성 쌀 두바이 수출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보성녹차 명품화와 고품질 발효차 개발, 연관 산업 육성 등으로 한국 차 산업을 선도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보성녹차 임점 등 유럽을 비롯한 해외시장 관로 개척, 차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차 박물관 개관, 세계적인 차 식물관 조성 등을 통해 세계적 차 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역사와 문화, 휴양과 레저가 있는 녹색 문화·관광

전 북

정읍시 옛 모습 찾는다

역사자료 수집 전산화 추진

정읍시는 옛 모습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역사자료를 수집해 전산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한제국, 일제 강점, 한국전쟁, 경제개발,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자료와 현재의 정읍 모습과 행사, 사업장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1960년대 이후의 정읍과 서민의 생활은 물론 의식주와 관혼상제, 생활풍습, 재래시장, 농촌 등을 담은 영상·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며 행정관청, 사진작가협회, 국가기

록원, 도내 언론사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기관과 거리·상가 등의 옛모습과 현재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 철거됐거나 사라진 역사성이 있는 건물 등을 담아 발굴할 계획이어서 출향인 및 시민들에게 향수와 애郷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시 미래전략팀 관계자는 “과거 기록을 발굴해 정읍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항상 검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다문화 가족 사랑캠핑

지난 9~10일 곡성 청소년여영장에서 열린 ‘남원시 부부사랑 캠핑축제’에 참가한 다문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45가족이 참여해 떡·두부 만들기와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 가족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남원시 부부사랑 캠핑축제’에 참가한 다문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45가족이 참여해 떡·두부 만들기와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 가족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익산 36년된 평화육교 붕괴 우려

정밀진단서 ‘차량 제한’ 판정에도 정부 능력대책 2014년 고속철 개통때 안전 담담 못해 주민 불안

KTX 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게 될 익산 평화육교 도로가 붕괴 우려를 낳고 있지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능장을 부리고 있다.

11일 익산시와 평화육교 주민에 따르면 1975년에 설치된 평화육교(길이 193m·폭 16.2m)는 지은 지 오래돼 육교 도로 일부가 기울어졌고, 난간이 흔들리는 등 붕괴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이 육교는 지난 3월 정밀 안전진단에서 시급한 보수와 차량 제한이 요구되는 ‘D급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익산시는 지난 3월부터 2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공사 중인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평화육교 하부 교각에서 불과 5m

바닥 떨어져 있지 않아 향후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진동으로 인한 사고 우려를 안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평화육교 통과구간에 대한 공사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전주 지방환경청은 최근 환경성평가가 협의사업장에 대상으로 상반기 점검을 실시, 18개 사업장(미이행 24.3%)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간척사업과 골프장, 관광지, 도로, 석산 등 관내 74개 사업장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4년으로 계획된 호남고속철도의 개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시는 현재 평화육교 차도의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소극적 이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는 “평화육교 차도가 KTX 개통에 맞춰 좀더 튼튼하게 건립돼야 익산시가 차량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연북뉴스

전주 환경청, 환경성평가 미이행 업체에 과태료

전주 지방환경청은 최근 환경성평가가 협의사업장에 대상으로 상반기 점검을 실시, 18개 사업장(미이행 24.3%)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간척사업과 골프장, 관광지, 도로, 석산 등 관내 74개 사업장

뉴스 브리핑

새만금 분뇨배출 왕궁지역 축사 매입 시작

환경부는 새만금 상류에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익산 왕궁지역 현업축사를 대상으로 토지 매입을 시작했다.

이는 총리실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익산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15년까지 428억원의

예산으로 30만5000㎡의 토지를 사들인다.

환경부는 익산 왕궁지역 현업축사를 협의매입한 뒤 바이오순환립 조성 등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 지상 3층규모 예술의 전당 내년 완공

군산시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예술의 전당’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총 760억원을 들여 지곡동 새들공원 부지 4만1609㎡에 건축 연면적 1만8616㎡(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

올 상반기에 부지정지와 기초

공사, 외부 골조공사가 마무리됐으며, 하반기에는 내부 무대기계, 음향, 조명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앞으로 ‘예술의 전당’이 완공되면 오페라·뮤지컬 공연을 할 수 있는 1200석 규모 대공연장과 ▲450석 규모의 소공연장 등을 갖 추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김제사랑장학재단 고교생 대상 여름방학 특강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에 거주하는 관내·관외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논술·탐구영역)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여름방학기간을 중점 활용해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열린다.

인문논술, 자연논술 과목은 각 8회, 사회탐구 2과목과 과학탐구 2과목은 각 4회씩 수능대비 파이널 특강으로 구성돼 있다.

특강 참여희망자는 13일까지 지정신청서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완주군, 주민참여 환경강 살리기 워크숍

완주군은 최근 용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환경강 수질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형 강살리기 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살리기 사업추진단은 사업 계획 설명에서 완주군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하천 생태체

험 프로그램 운영, 하천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계획을 소개했다.

또 하천 주변 주민과 기업, 교육, 단체,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하천 네트워크’ 사업계획도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고창서 내달 6일 ‘갯벌 스포츠 축제’

‘전국 갯벌 스포츠축제’가 8월 6일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 체험학습장에서 펼쳐진다. (사진)

고창군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풋살, 마라톤, 줄다리기 같은 스포츠 경기와 함께 장어잡기, 어망체험, 장어잡기, 조개 캐기, 에어 바운스 등의 체험행사로 꾸민다.

미니 축구경기의 풋살은 ▲20대부 ▲30·40대부 등 2개부로 나눠 진행되며, 갯벌 줄다리기는 관공객과 주민이 함께 참가한다. 갯벌을 달리는 마라톤(전갈달리기) 대회 참가자는 풍

천장이 점심을 공짜로 즐길 수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어망체험과 장어잡기, 조개캐기 참가자들은 잡은 수산물을 가져갈 수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갯벌축제는 지난 2007년 ‘하베이스파리트호’ 유류유역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한편 스포츠경기가 참가 마감은 7월 22일이며, 체험행사 참가는 당일 현장에서 접수한다. 문의(063-560-2701)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